

# 무엇으로 마음을 막는다

제51주년 지구의날 행사 - 고하도 해안가 쓰레기줍기 (2021. 04. 22.)



## 목 차

02 특별기고

04 회원기고

05 에코리딩 독후감

06 활동보고

08 회계보고

10 특별기고

12 현안사업 / 청소년기자단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위원회 모집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 환경민주주의

글 | 김종국 집행위원

요사이 공정이 화두이다. 공정이란 곧 평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기회와 정보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게 공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사회에서 환경문제 또한 평등하지 않다. 먹거리만 보더라도 유기농이나 무농약 제품들은 비싸서 서민이 선택하기 어렵고, 정체불명의 수입산이라도 가성비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게 서민들의 일상이다. 또 일상용품을 보면 무독성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비닐 등은 가격이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아무런 규제 없이 수많은 제품들이 서민들에게 팔리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에서도 빈부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며 이제는 '환경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는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부자와 가난뱅이를 가리지 않고, 숨 쉬는 사람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같기 때문에 평등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불평등하다. 이 질문의 답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을 세울 때 미세먼지가 심할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건강 피해를 줄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미세먼지를 '불평등'과 연결 지어 10년 넘게 꾸준히 연구한 학자가 바로 고려대 보건과학대 이종태 교수이다. 그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연구해왔다. 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천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미세먼지 농도는 고소득 지역에서 높은 반면 천식 환자 비율은 저소득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국가와 지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하다.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농업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20년 전에 비해 재해 수는 1.7배 늘어났는데, 전체 재해의 90%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선진국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서 4배나 많이 발생했다.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기상이 변은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힘들고, 재난복구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 더욱 큰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결과만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불평등의 사회구조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이기도 하다. 우선, 지구의 자원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생태발자국은 인간이 지구에서 의식주 등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1인당 1.8ha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태발자국 면적은 넓어진다. 선진국에 사는 20%의 사람이 전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어서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인구 20% 이하의 소위 선진국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피해는 온실가스의 3%만 배출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환경적 요소로부터 평등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35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용인하고 여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부정의 한 상황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환경 정의가 권리적 측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사회 약자들이 겪는 환경 불평등, 환경 부정의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 부정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 피해가 물리적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시대 환경 정의 과제로서 시급한 것이 ‘환경민주주의 실현’이다. 환경 정의 정책은 천연자원, 환경 서비스 등 혜택과 환경비용의 공정성,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과 배상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의미 있는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사회의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리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역 주민들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환경정책·제도의 결정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넘어서 일반 국민과 환경 NGO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잠재적 환경 갈등과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매시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지만, 범시민적인 참여 속에 어떠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찌 보면 일상에 바쁜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환경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생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와 같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가 계층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쾌적한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주체가 될 때, 비로소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예찬'

글 | 우성주 회원

우리나라 청소년은 그 정의가 모호합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을 통칭하지만 「청소년기본법」 9~24세,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민법, 19세」, 「형법, 14세」의 미성년자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흔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영어권에서는 teenager라 부릅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2차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99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보호법」 제48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목포의 경우 현재 시민경찰연합회, YMCA, YWCA 등 3곳에서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목포시와 민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임무는

첫째, 22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PC방, 노래방 등)를 방문하여 미귀가 청소년의 귀가를 돕습니다. 법규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관계된 법령을 홍보하는 등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담배와 주류의 판매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접근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늦은 밤 하교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며 우범지역 및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학교 밖 폭력과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 청소년 출입 업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청소년들의 마스크 쓰기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법을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 하기엔 너무 이르고, 어린이라 하기엔 아직 연약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푸르른 나무가 되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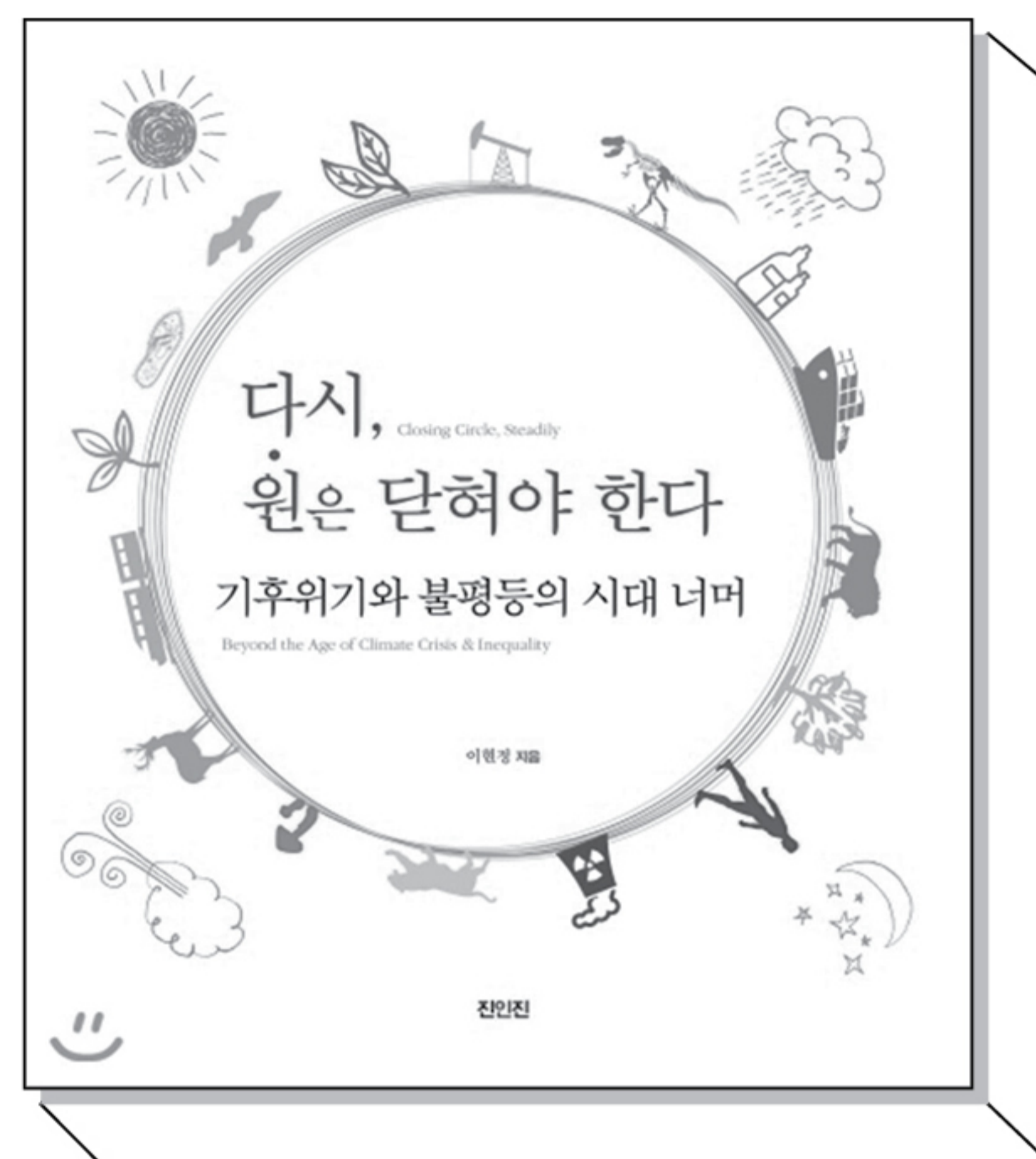
#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

글 | 송예희 에코리딩 동호회

숲세권 아파트는 ‘청약신청 해야지’, 가덕항 신공항 건설은 ‘근처 땅 좀 사 놓을 걸’, 신소재 개발은 ‘관련 산업 주식 좀 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익의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없애고 짓는 숲세권 아파트, 경제성과 글로벌 위상 아래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과 그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근로 환경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토지와 노동의 가치는 화폐로 결정되는 세상이다.

## 다시, 원은 닫혀야 한다.

생태학자 배리 카머너는 1971년에 「원은 닫혀야 한다」라는 책을 통해 환경문제를 생태계의 완전한 원을 이루는 순환 고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가 다시금 그 원을 닫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원 :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원인 지구는 닫힌 시스템이다.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고정하고 소비자가 소비하고 곰팡이 같은 분해자가 분해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태양→생산자→소비자→분해자] 닫힌 구조로 순환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분해자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순환의 고리가 끊기고 평형이 깨진 결과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미세먼지, 에너지발전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주인공들은 치즈가 없어진 상황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치즈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는 모습과 먹어서 없어진 치즈를 누가 가져갔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말이다. 화석연료는 상해서 못 먹거나 금방 먹고 사라질 치즈라고 본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자연환경으로 만든 정책 :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외에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당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명확한 목표로 24시간 밤샘 작업, 장마 기간 및 혹한기 공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며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대강 사업 완공 후 1년 국정감사, 원인 규명 등 관심이 이어졌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변해버린 자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시선

자연환경으로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큰 이익을 얻을 때, 그 언저리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며 혜택을 누리고 조화롭게 살아가야지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소식지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사무국(061-243-3169)으로 연락주시시오



3월

- 02일(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교부신청 | 비영리단체 노트북(IT)지원 | 소식지 연구성 작업
- 03일(수) 뜨개마루 |故서한태 박사님 추모 안내 웹자보(회원 카톡발송) |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 04일(목) 하수과 담당 팀장 사무국 방문 면담 | 사무국과 집행위 긴급간담회(입암천 우수지 문제 관련)
- 05일(금) 환경수도사업단에 남해유수지공사 관련 답변요청서 발송 | 함께사는길 발송
- 06일(토) 에코트레킹(신안군 가란도) |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 07일(일) 중앙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장 목포 방문(유수지 방문)
- 08일(월) 보수총액신고 | 제로웨이스트 실천 '친환경세제' 생산업체 '강청' 방문
- 09일(화) 환경연합 국처장단 회의 참석 | 뜨개마루 |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 10일(수) 도시문화재과 사무국 방문 면담 | 공원녹지와 사무실 방문 면담 | 함께사는길 잡지 구독자 모집
- 11일(목) 신안 압해 송공산 한옥촌 현장조사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 10년 기억하기 캠페인(목포역) |  
온라인 회계교육 |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기자회견
- 13일(토) 故 서한태박사님 추도 3주기 행사
- 15일(월)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부모임(입암천 우수지 공사 관련) | 미안마 관련 피켓시위(전남도청 앞)
- 16일(화) 소식지 발송 준비 | 뜨개마루 | 미안마 관련 피켓시위 | 비영리단체 온라인 업무 효율을 위한 IT지원 온라인 교육
- 20일(토) 삼향천 생태기행(28명) | 청소년환경기자단 2기 오리엔테이션(7명)
- 22일(월) (가)해안동발전추진위 면담 | 햇빛발전소 관련 회원 면담
- 23일(화) 목포시하수과 면담 | 전남환경네트워크 온라인 회의 | 삼진산단 선박수리업체 페인트가루 민원조사 |  
6.15집행위 | 뜨개마루 | 비영리민간단체IT교육
- 24일(수) 상생나무와 지구의 날 맞이 쓰레기 줍기 온라인 회의
- 25일(목) 전남교육감 면담 | 강청물비누 홍보자료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IT교육
- 28일(일) 환경재단 상담 공모지원 지원서 제출
- 29일(월) 전남화상회의실에예약시스템 등록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 선박수리업체 분진민원 관련 현장재방문
- 30일(화) 정보시스템 기기구축관련 계약서 발송
- 31일(수) 섬 쓰레기 모니터링(하의·신의도) | 섬쓰레기 모니터링 계획서 초안 작성 | 뜨개마루

·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 10년 캠페인



· 3월 13일 故 서한태박사님 추도 3주기 행사



· 3월 17일 부귀영화 동호회



· 3월 20일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삼향천)



# 4월

- 01일(목) 정보시스템 기기구축비용 정산 | 미안마 군부 쿠테타 중단 기자회견(오거리문화센터) |
- 02일(금) 세월호대표자회의(목포여성의전화) / 음식물쓰레기수거 시민평가단(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환경지도팀장 사무국방문 | 연안환경미술행동전시 참석(자은)
- 05일(월) 지구의날 행사준비 고하도 현장답사 | 목포시하수과 면담 | 제로웨이스트간판 제작주문 | 생태기행 답사(옥암수변공원) | 목포시 환경지도계, 노동인권센터 삼진산단 민원관련 면담
- 06일(화) 뜨개마루 | 6.15총회 | 생태기행 웹자보 초안작업
- 07일(수) 뜨개마루 | 고하도 해변 청소(밴드공지) / 생태기행 신청 접수 웹자보 발송
- 08일(목) 민간자원순환사업계획서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IT교육
- 09일(금) 민간자원순환사업 계획서와 사업약정체결서 제출 | 목포지역 인근 탁주용기 실태조사
- 10일(토) 옥암수변공원 생태기행(27명) | 청소년환경기자단 2기 생태 감수성 교육(13명)
- 12일(월) 김훈 시의원 규탄 탄원서작성 | 가덕도신공항반대, 플라스틱 트레이 모으기 회원참여 캠페인
- 13일(화) 의장단, 사무국 주간회의
- 14일(수)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문 발송(남향, 우수지 관련) | 신안군 철새 모니터링(매화도, 마산도)
- 15일(목) 제233차 집행위회의
- 16일(금) 세월호 7주기 기억식 |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목포역)
- 19일(월) 목포시 환경지도계, 산업지도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삼진산단 민원관련 면담
- 20일(화) 기후위기대응 광주전남협력방안모색토론회 중 회의 | 화상회의실 현장평가 |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사업 착수보고회 중 회의 | 뜨개마루 |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 면담
- 21일(수) 우수지 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토목분야) | 부귀영화(영화감상 '씨스피라시')
- 22일(목) 제51주년 지구의 날 행사(고하도 해안가 쓰레기줍기 30여 명) | 목포시 환경지도계 사무국 면담
- 23일(금) 공용화상회의실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지 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 | 플라스틱트레이 수거 회원 안내
- 24일(토) 청소년환경기자단2기 대반동쓰레기줍기(13명) / 박승희열사 분신항거 30주기 추모식
- 26일(월) 소식지 준비회의
- 27일(화) 환경연합 전국 동시 행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발송
- 28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기자회견(30여 명) | 목포시 하수과 면담(자문의견서와 시공방안 전달받음)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전남 시민단체 네트워크결성 회의
- 29일(목) 전남환경연합 국처장단 회의, 영암 민원현장 방문 | 환경운동연합 사업장 폐기물 내부 간담회 온라인 회의 | 4.16문화예술학교 참여
- 30일(금) 비영리IT지원센터 온라인 회의

· 4월 1일 미안마 군부 쿠테타 중단 기자회견



· 4월16일 세월호 7주기 기억하기



· 4월17일 에코트레킹



· 4월 2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기자회견



회비 납부

3~4월

2021년

(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지엔지/(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대신아이시티(주)/오래뜰/만인계마을기업/목포대성신협/영암일보(주)/우진건설/코롬방제과점\_정철주/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성휘/강영규/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희/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곽진용/구봉선/국순천/권가별/권수한/

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진/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민/김용진/김용진/김웅기/김원이/김유경/김윤열/김윤임/김은미/김음/김인순/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주재/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형용/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호빈/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나현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은경/류재청/마흥식/모원종/무관/문보현/문성종/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효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문욱/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수/박종순/박종위/박지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현철/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백동진/백성숙/백영규/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연순/서영선/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선호성/설단숙/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문선/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요삼/안정배/안혜영/양덕수/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영상/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오경섭/오문환/오민임/오수진/오승원/오왕근/오재록/우성주/위준철/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주훈/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환/이승희/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환/이종훈/이주연/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창현/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정원/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진영/장향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용원/전준수/전한솔/전형숙/정고운/정기문/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유나/정유미/정윤나/정윤안/정윤정/정인숙/정일/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석/정홍조/정효준/조경민/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철제/조혜향/조호빈/조후현/주성은/주인철/지이화/진선우/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식/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황민수/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9,386,000
	단체회비	515,000
소 계		9,951,000
사업수입		350,000
후 원 금		470,000
기타수익		2,010,000
이자수익		0

- [사업수익] • 목포안경점 소식지광고비 5만원  
• (주)지앤지 소식지광고비 1년 30만원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뜨개마루 2만원  
• 진지연 5만원  
• 전용원 소식지 후원금 25만원

- [기타수익] • 고용부 시간선택 지원금 180만원  
• 이충완 5만원  
• 호남통신 16만원

[2월 CMS 3차 3월에 입금됨]

### 3월

당월수입금	12,731,000
전월이월금	4,857,866
합 계	17,588,866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442,500
	조사연구	142,000
	홍 보 비	345,600
	행 사 비	253,300
	연대사업	507,840
	역량강화	0
소 계		1,691,24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114,500
소 계		114,500
인 건 비	급 여	5,753,800
	복리후생비	1,479,840
	퇴직적립금	509,399
소 계		7,743,039
업무추진비	출 장 비	93,500
	활 동 비	80,000
소 계		173,5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36,000
	통신광열비	507,400
	소모품비	40,300
소 계		1,083,7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7,360
	보 험 료	115,000
	사무국이전기금	0
	지급 수수료	323,120
소 계		555,480
당월지출금	11,361,459	
통장 잔액	6,227,407	
합 계	17,588,866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7,946,000
	단체회비	410,000
소 계		8,356,000
사업수입		0
후 원 금		150,000
기타수익		3,600,000
이자수익		0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기타수익] • 고용부 시간선택 지원금 360만원

### 4월

당월수입금	12,106,000
전월이월금	6,227,407
합 계	18,333,407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344,000
	조사연구	269,900
	홍 보 비	128,000
	행 사 비	50,000
	연대사업	715,120
	역량강화	0
소 계		1,507,02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30,000
소 계		30,000
인 건 비	급 여	5,686,230
	복리후생비	1,343,480
	퇴직적립금	509,399
소 계		7,539,109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80,000
소 계		80,0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0
	통신광열비	264,250
	소모품비	60,680
소 계		324,93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보 험 료	100,000
	사무국이전기금	0
	지급 수수료	307,880
소 계		514,350
당월지출금	9,995,409	
통장 잔액	8,337,998	
합 계	18,333,407	

# 박승희가 꿈꾼 세상

글 | 양승희 환경교육위원장

1991년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충격과 좌절이란 단어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받은 정신적 외상으로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해 4월 말경, 명지대생의 강경대가 민주화를 위한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폭력 진압으로 숨졌습니다. 강경대가 대학에 입학한 지 두 달째였습니다. 그런 강경대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박승희가 강경대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교무실은 죽음 같은 절망감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가르쳐서 졸업시킨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교사 4 명이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앞의 긴 거리에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땅바닥에 끝도 없이 앉아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비장했고, 거리에는 온통 최류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열어준 길로 박승희가 있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온몸을 봉대로 칭칭 감은 채 누워 있는 승희를 보았습니다. 승희를 돌보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승희가 허공에 하얀 봉대의 손으로 글씨를 쓰면, 그 내용을 친구들이 종이에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인사 끝에 승희는 나에게 노래를 불러 주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만 병실에서 남아 승희가 좋아하는 ‘백치 아다다’를 생각난 대로 불렀습니다.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 검은 머리 큰 비녀에 다홍치마 어여빠라 / 꽃가마에 미소짓는 말 못하는 아다다여

차라리 모를 것을 짧은 날의 그 행복 / 가슴에 못 박고서 떠나버린 임 그리워 / 별 아래 울며 새는 검은 눈의 아아아아 아아 아다다여

이 글을 쓰면서 노랫말을 찾아서 써 놓았는데, 그 당시에서는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승희의 중환자실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날은 더 나았습니다. 승희가 살아있었으므로. 그러나 승희가 목숨을 거둔 전남대학교 병원의 복도 양 끝에는 사람들이 나뒹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절망으로 일그러뜨린 채 짐승처럼 울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득하고 또 아득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비싸게 판, 그의 글에서 죽은 자들을 또 죽였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승희의 죽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함과, 분노와, 혼란과, 염려스러움, 그리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승희의 죽음에 한이 많습니다.

승희가 그런 참혹한 계획을 세우기 몇 달 전, 겨울방학 때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일요일 당직으로 학교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짜장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라면만 먹어도 황송할 터인데 이런 맛있는 짜장면을 먹게 되어 행복해요.”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승희에게 내가 해준 말은 고작,

“어른들을 걱정시키는 데모 좀 안할 수 없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른들께 걱정스럽지 않도록 할게요.”라며 승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였습니다. 그 애가 한 권의 시집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펴낸 시집과, 좋아한다는 시 제목도 보내왔습니다. 「아니요, 데모 안 해요 아버지」이었습니다.

완강한 격전 끝에 밀리다 / 하늘엔 연신 고향집 연기 같은 최루탄  
저문 하늘 노을에 섞여 / 눈물과 쓰라림으로 덮치고  
울컥 아버지 생각 /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섰다  
백동전을 삼킨 전화기는 / 가쁜 숨소리 같은 심호음을 보내고.  
아버지 저예요 광주예요 / 몸성히 잘 있어요? 집안엔 별일 없나요?  
아니요, 데모 안 해요 아버지 / 걱정 마세요.  
경고음이 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최은희, 『썩고개 편지』)

나는 승희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것처럼 주위 사람을 사랑했던 승희가, 죽는 순간까지도 주위 사람을 배려했던 승희가,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데다가 혹시나 그 여린 생명이 죽음의 기미를 우리에게 던졌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아둔함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자괴감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은 승희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선배 최은희가 쓴 일부 시입니다.

검게 부서지는 손톱 /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그 손, 그 손으로  
팔을 들어 네가 써 보이는 마지막 시 /  
끝. 까.지.하. 나. 되. 어  
끝. 까.지.하.나. 되. 어

나는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승희의 높은 뜻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그 애를, 도대체 무슨 말로 대신한단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말은 또 아름다운 영혼을 담아내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그릇인가.

그러나 승희가 없는 이 세상이지만, 승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열사약력

- 1971. 04. 전북 전주 출생
- 1990. 02. 목포 정명여고 졸업
- 1990. 03.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입학, 과대의원활동  
교지 「용봉」 편집위원으로 활동
- 1991. 04. 전남대에서 '고 강경대열사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중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2만학우 단결하라!"를 외치며 분신 항거
- 1991. 05. 21일간의 병상투쟁 후 운명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그림 작\_김동석

## 현안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남해빛물펌프장 우수지

- 2월 22일 우수지 공사 확인, 현장답사
- 2월 24일 [성명서 발표] 목포시의 우수지 관리 문제와 생태습지로의 기능을 위해 현재 방식의 공사 중단 촉구
- 2월 28일 입암천 우수지, 2호 광장과 3호 광장 도로 침수 관련 현장 모니터링
- 3월 05일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에 남해 우수지 공사 관련 답변 요청서 발송
- 3월 07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생태보전팀장 우수지 현장 방문
- 3월 23일 목포시 사업추진 배경과 공사변경(안) 브리핑, 전문가 초청 의견 청취 제안
- 4월 21일 전문가 현장방문(토목분야). 자문위원 의견 청취
- 4월 23일 전문가 현장방문(조류분야). 자문위원 의견 청취
- 4월 28일 전문가 의견 반영한 목포시 관리 변경안 수신
- 5월 07일 임시집행위원회 논의 후 관리 변경안 의견 목포시 송신

## ●● 청소년환경기자단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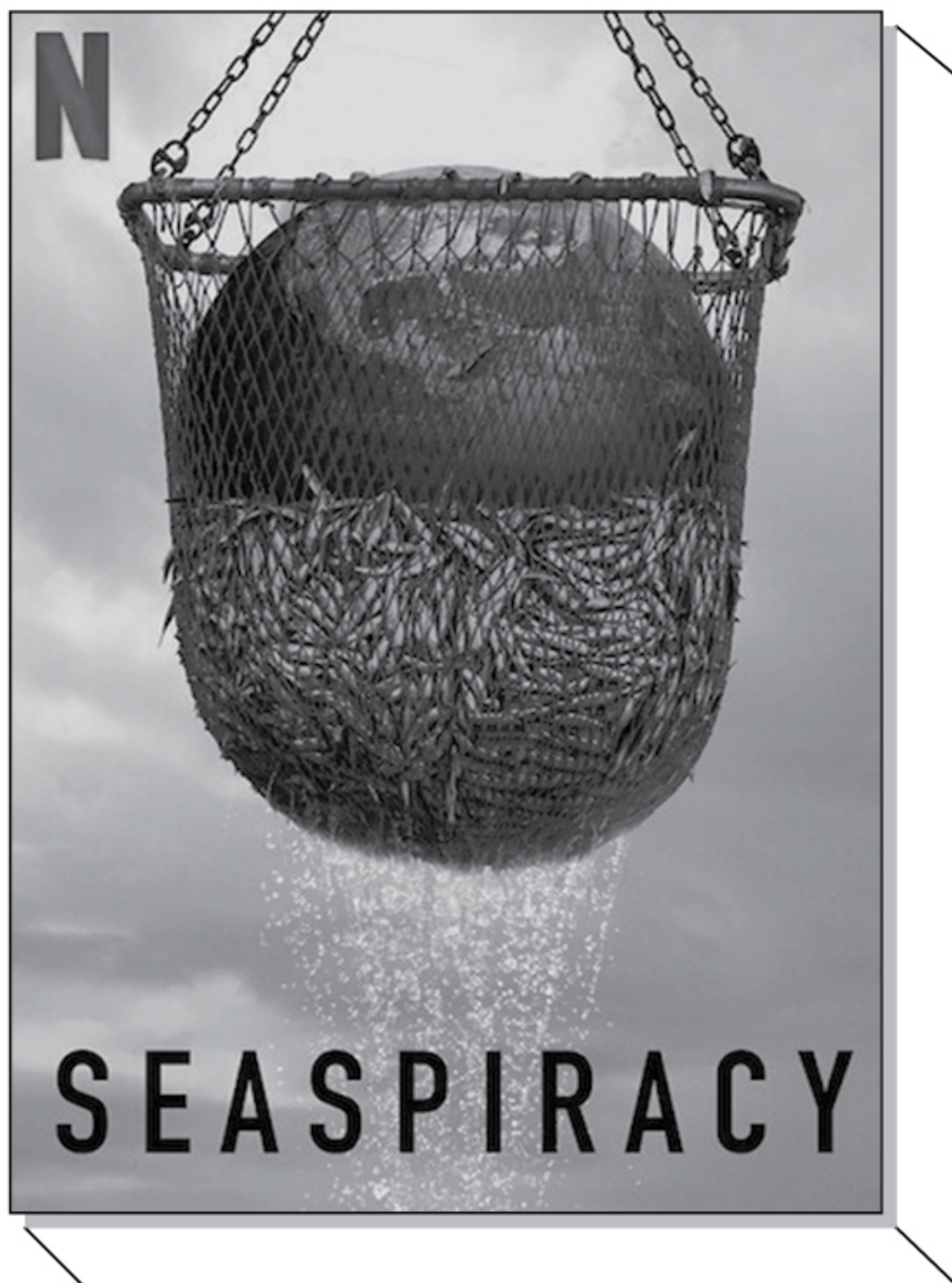
###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지난 3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실 2층에서 청소년환경기자단2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나눔인권센터 문지영 강사님과 함께 공동체놀이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기는 중·고등학생 총 19명이 활동합니다. 4월 10일에 두 번째 모임을 가졌고, 생명감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집·씨·소울푸드커뮤니티키친 박세영 강사님이 진행을 맡아 주셨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꽃나무, 바람, 구름, 흙, 바다, 미나리아재비, 악어 등)에 대해 적고, 그것을 떠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손가락에 실을 감고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에 실타래를 넘겼습니다. 눈앞에 초록빛 거미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 실을 흔들거나 당기면, 손끝으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자연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거울놀이와 카메라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4월 24일에는 지구의 날과 기후환경주간을 맞이하여 대반동 일원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래사이 보이는 노끈, 냅시용품, 유리병조각, 담배꽂초, 플라스틱 음료수 컵 등 쓰레기를 묵묵히 주웠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활동을 하면서, 지켜나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즐거움, 친근감 있는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청소년환경기자의 소감이 기억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며 섬세하게 들여다 볼 줄 아는 청소년환경기자단 2기 많은 응원과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씨스피라시

감독 : 알리 타브리지 | 다큐멘터리 | 89분 | 15세 관람가

"그가 사랑하는 바다가 죽어간다. 인간이 그 경이의 세계를 파괴한다.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나간 감독. 그가 맞닥뜨린 것은 전 세계에 걸친 부패의 그물이었다."

〈씨스피라시〉는 가장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환경다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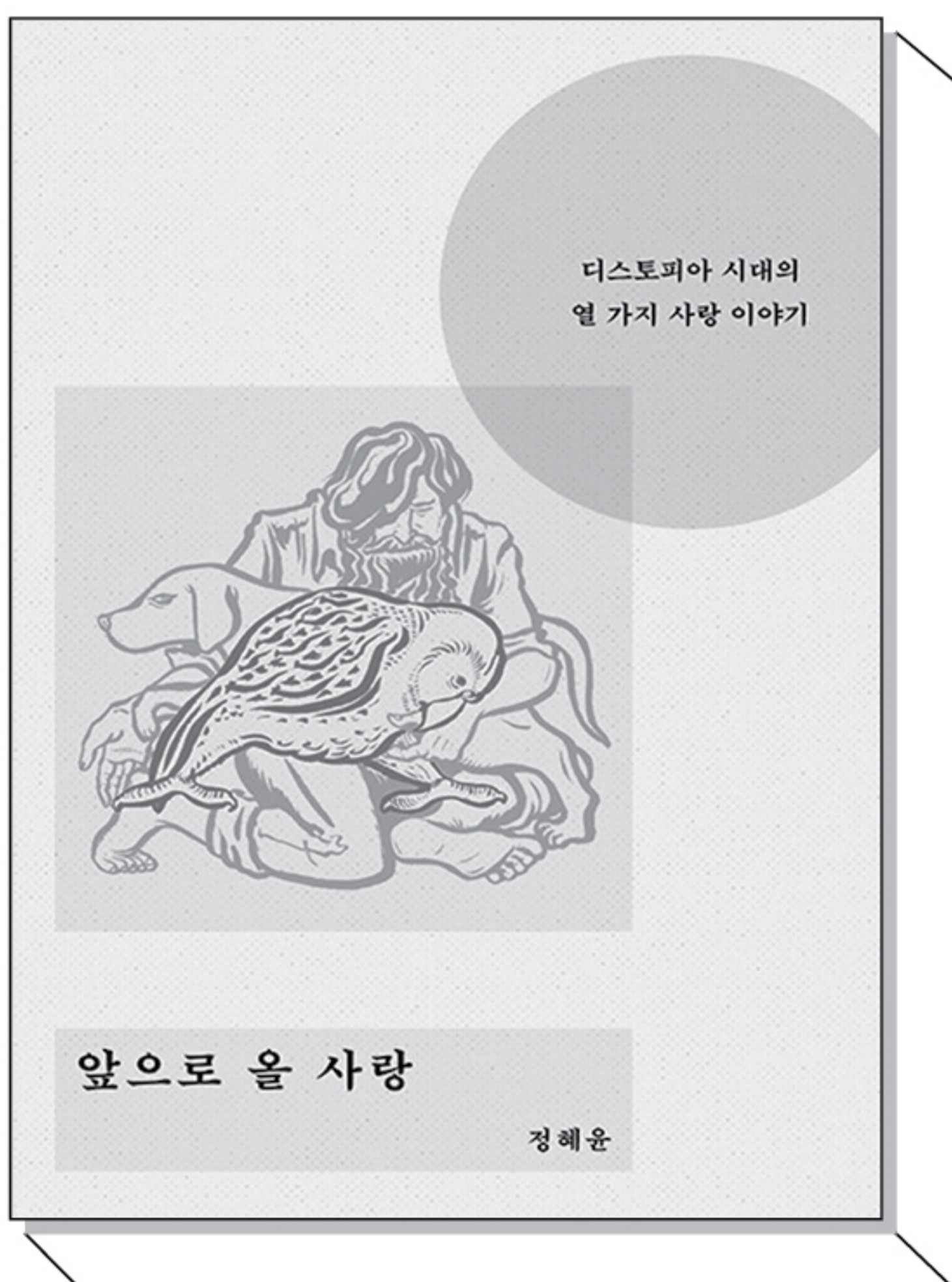
〈씨스피라시〉는 '바다(Sea)'와 '음모(Conspiracy)'를 합쳐 만든 용어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음모를 뜻한다. 감독은 플라스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그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한다. 쓰레기에서 시작된 다큐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하면서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준다. 반백년 사이에 바다 생물의 개

체수를 90%나 감소시킨 인간의 이기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 정리해 놓은 환경 다큐멘터리이다.

## 앞으로 올 사랑

디스토피아 시대의 열 가지 사랑 이야기

정혜운 저 | 위고 2020



『데카메론』의 형식을 빌려 열 가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대하소설”인 마거릿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3부작, 살랭이의 잊을 수 없는 운명을 그려낸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잔인한 공장식 축산과 유전자 조작 식물에 관해 폭로한 미셸 우엘벡의 『세로토닌』, 고독한 노동 한가운데에서 잠시나마 함께 있는 일의 온기를 느낄 있는 순수한 시간에 관한 존 버저의 이야기, 히틀러의 부대로부터 식물 종자를 지키는 바빌로프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잘못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차리게’ 해준다.

저자는 말한다. “상상해본 적 없는 거대한 단절의 시기인 지금, 이 균열 속에서 좋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음은 꽃피고 나쁜 일은 벌어진다.”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디지털 탄소발자국의 정의와 탄소배출 줄이는 생활습관 알아보기

오늘은 여러분께 일반 발자국이 아닌, 조금 특이한 발자국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환경과 아주 깊~은 관계인 '탄소 발자국'이에요. 탄소에 발자국이 있다고? 물어보실 만큼 생소한 '탄소 발자국'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봐요!

## 탄소 발자국과 디지털 탄소 발자국

먼저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의미해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의 흔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기, 가스, 수도 및 이용 교통수단에서 매일매일 탄소 발자국이 찍히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탄소 발자국의 표기할 때에는  $\text{KgCO}_2$  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무게 단위인 Kg이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수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른 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text{ KgCO}_2$ 를 흡수한다고 표기하는 것이죠!

탄소 발자국은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범위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TV, 라디오 등으로 전자제품이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와이파이나 데이터, 전화를 걸 때,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대기 전력까지도 모두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주범이 되는 셈이죠.

## 디지털 탄소 발자국,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먼저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의미해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의 흔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기, 가스, 수도 및 이용 교통수단에서 매일매일 탄소 발자국이 찍히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탄소 발자국의 표기할 때에는  $\text{KgCO}_2$  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무게 단위인 Kg이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수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른 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text{ KgCO}_2$ 를 흡수한다고 표기하는 것이죠!




탄소 발자국은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범위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TV, 라디오 등으로 전자제품이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와이파이나 데이터, 전화를 걸 때,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대기 전력까지도 모두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주범이 되는 셈이죠.

# 위원회에서 함께 할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여러 분야의 고민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목포의 강·하천을 맑게!!**

하수종말처리장 및 조선시설주변 갯벌 조사  
목포 강·하천 모니터링



**강하구위원회**  
임 성 진 위원장  
010.5663.1598

**잿빛 도심에 녹색 활력을!!**


도심 녹색 프로젝트(가로수, 공원 등)  
환경친화적 도시정책 연구 활동



**도시환경위원회**  
제갈경희 위원장  
010.3326.3890

**바다와 갯벌을 생명의 터전으로!!**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연안 환경 수시 모니터링



**해양갯벌위원회**  
김 경 완 위원장  
010.5639.2990

**백년의 계획 환경교육의 시작!!**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생활 교육문화 정착



**환경교육위원회**  
양 승 희 위원장  
010.5654.3151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1. 03. 11. ~ 2021. 05. 10.)

설단숙(최송춘 추천) | 김대현(우성주 추천) | 이순용(최순재 추천) | 장근현(자발적 가입) | (주)지앤지(김종국 추천)  
정유미(김미정 추천) | 양영숙(지이화 추천) | 장재구(김경완 추천) | 이충완(자발적 가입) | 만인계마을기업(제갈경희 추천)  
차선미(최승희 추천)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b>물비누</b>	세탁용 (1000g) : 8,000원	<b>고형비누</b>	세탁용 (250g) : 1,500원
	주방용 (1000g) : 9,000원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지고 와주세요.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월~금(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 괴테



김종국 회원



###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 물티슈의 두얼굴??

편리한 물티슈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손현 회원

전국5대 빵집  
전국 택배 배송

### 콜롬방제과점

매일 08시~21시/연중무휴

061-244-088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75번길 7  
www.colombang.com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 게스트하우스



달 구 메 010-3326-3890  
달빛언덕 010-4632-8976  
더오래뜰 010-4136-1137  
리 인 010-7181-2990  
수 다 방 010-2103-6305